

[기획] >> 5면
교내시설 대관 문제

[심층] >> 7면
빈대 확산

[사회] >> 8면
메가 서울

[인물] >> 12면
박희권 전(前) 대사를 만나다



문제있는 자치공간, 위축되는 학생활동

우리학교에 다양한 자치공간이 존재한다. 최근 이 공간들에 대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 △자치공간에 관한 문제점의 원인 △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사진 남우현 기자 07woohyun@hufs.ac.kr

우리학교 미디어외교센터, 월간 동북아 이슈 리포트 5호 발표

지난 1일 우리학교 미디어외교센터는 월간 동북아 이슈 리포트 5호를 발표했다. 해당 리포트는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중국 주요 언론에서 전한 우리나라 관련 보도를 취합한 후 언어별로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언론 보도의 주요 3개국의 주제와 숨겨진 의미구조 등을 밝혀냄으로써 우리나라 담론 형성의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분석된 결과 보고서다.

지난 9월엔 △미국△일본△중국 3개국의 언론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이슈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언론이 북한의 핵 군비 확산과 러시아 정상회담 등을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 언론의 경우 북한으로 인한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모습도 다수 나타났다. 일본 언론의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보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나라와 중국 무역 관계 및 우리나라와 북한 안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언론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스포츠 외교의 일환으로서 강조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선 한덕수 총리와외의 만남을 주로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난 9월의 우리나라에 관한 관련 언론 보도가 그 이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난 9월 인도에서 있었던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나 한·일 교류 축제 등의 행사를 중심으로 양국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보도가 다수 나타났다.

동일 기간 동안 미국 언론에서 전한 우리나라 관련

자유술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주한 폴란드(Poland) 대사관과 공동으로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해

지난 9일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과 최성은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학과장(이하 최 교수)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3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우리는 형제! 한국인과 폴란드인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총 20명의 참가자가 경연을 벌였으며 이중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된 9명의 학생은 무대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연대회 결과 저학년 대전의 1등을 거머쥔 학생은 우리학교 2학년 오기운 학생이었으며 고학년 대전의 1등은 우리학교 4학년 성은총 학생에게 돌아갔다. 경연대회가 끝난 후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폴란드 교육부가 제공하는 △6개월 어학연수 장학금△서머스쿨(Summer School) 장학금△폴란드 현지 공공기관 인턴십의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또한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이은구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장이 마련한 특별 기념품도 수여됐다.

경연 심사를 위해 우리학교를 찾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으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협력관계가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다"며 "방산과 원자력 발전 분야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까지 양국의 협력이 활발해지는 현재 폴란드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번 대회가 양국 외교의 선봉에 나설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 교수는 "국내에서 폴란드어를 전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인 우리학교 폴란드어과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와 폴란드 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폴란드어 전문 인재를 육성해 왔다"고 밝히며 이번 대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과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뜻깊은 교류의 현장을 담은 경연대회 및 시상식의 주요 장면은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외대학보는 1955년 창간 후 2023년 오늘까지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학교 언론사입니다. 외대학보사에서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 있는 수습기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미래의 언론인, 108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3. 11. 17(금) ~ 2023. 11. 26(일)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활동 가능한 재학생 (교육기간: 방학기간 중 주말 제외 3주 예정)
임기: 24-1학기 ~ 25-1학기

지원방법: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및 에브리타임 확인

필기시험/면접: 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연락

활동혜택: 언론 장학금 및 활동비 지급
취재 교육
자기 이름의 신문 기사 발행
명함 제공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문의: 조수빈 편집장 010-8646-4606

☆ 언론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보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외대학보는 열정과 책임감 넘치는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외대학보, 한강 작가 초청 북토크 진행해

외대학보는 지난 20일 한강 작가(이하 한 작가)를 초청한 북토크 '빛을 품고 가기를 개최했다. 행사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 4층에 위치한 BRICs 국제포럼장에서 당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 현장엔 외대학보 기자들과 사전에 참가 신청을 접수한 우리학교 재학생 80여명을 합한 총 93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이번 북토크에선 지난 2021년 출간돼 이번 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한 작가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행사는 △추사 및 개회사△작가 소개△작가 강연△질의응답△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전개됐다. 정은규 우리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이하 정 교수는 이날 추사에서 "작가를 초청한 특강을 학보사에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의미가 각별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 작가의 시 '파란 돌'을 낭독하면서 "매체가 다변화된 만큼 목소리 없는 자들의 존재성을 글을 통해 조명하려는 실천이 중요해졌다"며 한 작가 작품의 시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한 작가의 강연에선 작품이 쓰인 시점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소년이 온다'에 이어 폭력에 관한 파편화된 기록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한 작가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잔혹성과 야만성에 놀라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게 됐고 이에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작별하지 않는



▲한강 작가 북토크 현장

다를 타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설을 쓰게 된 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영상물과 함께 제주도에 방문했을 당시의 일화들을 훑어보기도 했다.

한편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작고 무기력하지만 평생에 걸쳐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빛을 품으며 써오던 이들을 생각하며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이 한 작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작가는 "역사를 쓴다는 것은 애도의 한 방식이자 존재의 본질에 가닿는 통로다"며 "단순히 죽은 과거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강연이 끝난 이후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사전에 취합된 질문과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질문에 한 작가가 답변하면서 흥미로운 대담이 오갔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 교수는 "학생들이 고통을 회피하기보다 강건한 태도로 고난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민연한 부조리 속에서도 마음 속에 각자 빛나는 내시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작가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7년 만에 작품을 완성했다"며 "작품을 읽어준 독자와 이번 강연에 참석한 참가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식순을 모두 끝마친 후 참가자들은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희망지에 한해 한 작가의 서명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 작가는 지난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단편소설 '붉은 달'으로 등단한 이후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한 △검은 사슴△비밀이 분다, 가라△소년이 온다△채식주의자△희랍어 시간△흰' 등의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고 △맨부커상△이상문학상△황순원문학상 등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우리학교, 청년창업 장려 프로젝트 '청년빌더 오디션 데모데이' 최종 수상작 발표

지난 2일 우리학교는 오바마홀(Obama hall)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청년빌더 오디션 데모데이(Demoday)'에서 총 4개 팀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웹 혁신을 이끌 청년 창업 장려 프로젝트인 이 오디션은 사단법인 에스디지유스(SDG Youth)가 주최하고 어셈블리인사이드(Assemblyinsider)가 공동주관한 행사로 △동대문구△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우리학교가 함께 후원한다. 니어코리아(NEAR Korea)와 NXTAZ 등도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창업팀 및 창업동아리와 시드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총 46개의 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문가 멘토링을 받은 6명의 심사위원이 6개의 프로젝트팀을 선발했다. 전문가 멘토단엔 △고유근 메디블록(Mediblock) 대표△김민철 야나두 대표△김정섭 루센트블록(Lucentblock) 부대표△오종욱 웨이브릿지(Wavebridge) 대표△이상산 니어코리아 공동대표△황윤식 푸딩코퍼레이션(Fooding corporation) 대표가 함께했다. 이날 '청년빌더 오디션



▲"청년빌더 오디션" 수상자들 기념 촬영 모습(출처: 전락홍보팀)

데모데이'에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현장 심사를 거친 최종 수상팀엔 △마인드리더즈△스카이로그△리빗△티파운더스 등 4개 팀이 선정됐다.

마인드리더즈팀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심리상담 커뮤니티 플랫폼인 '단호박상담소'를 제안해 청년빌더상을 수상했다. 스카이로그팀은 외국인 유

학생을 위한 원터치 학비 납부 서비스인 '스카이로그'를 제시해 니어프로토콜(NEAR Protocol)상을 받았다. 리빗은 영입 마감과 오픈 사이 공백을 채우는 무인 냉장고 판매 부스 운영 서비스로 '커넥트 팟(Connect pod)'을 선보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티파운더스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디지털 코칭 플랫폼인 'SPRINTT'를 제안해 동대문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은 데모데이 추사에서 "국가의 미래는 청년의 손에 달려있고 세계화 경쟁 시대에서 우리 청년이 앞서가기 위해선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투자연계형 프로젝트인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까지 이어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년빌더 오디션은 동대문구청의 새로운 시도"라며 "블록체인과 웹디자인 등 미래로 가는 길목에 '청년빌더 오디션'이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김대호 MBC 아나운서 초청 메타버스 토크콘서트 개최해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분부는 김대호 MBC 아나운서(이하 김 아나운서)를 초청해 '청년답게, 나답게 산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우리학교 메타버스 플랫폼인 엘지 유폴러스(LGU+)의 '유버스(UVERSE)'에서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엔 220여 명의 우리학교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분부는 △각종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매칭△전문통합상담체계 마련△지역 거버넌스 체계 심화 발전△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진로취업 교육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그가 가진 특유의 편안함을 바탕으로 '청년답게 사는 것'과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 참석자는 "비록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지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과는 나눌 수

없던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며 "오늘의 토크콘서트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민정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취업만을 목표로 진정된 자아와 진로를 찾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온 청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취업 후 허탈함을 마주하거나 나와 맞지 않다가 다시 구직의 길을 걷는 경우도 많이 지켜봐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였길 바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취업에 지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김연우(사회·정의 23) 학생은 "이번 행사가 진로 및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끼쳤고 우리학교에 이런 행사가 더욱 많이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한국수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은 한국 수사학회 회장인 나민구 우리학교 중국수사학 교수(이하 나 교수)와 함께 한국수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수사학이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과 대중 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수사학의 역사, 역사의 수사학(History of Rhetoric, Rhetoric of History)'이라는 주제로 △수사학 이론의 실천△수사학 탄생 이후 이론의 변화△한국수사학회와 수사학의 역사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에 대해 이에 대한 국내외 저명한 수사학 연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이뤄진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1일 차 제1부에선 '수사학의 역사: 그 교차와 진화'(History of Rhetoric: Crossing and Evolution)라는 주제로 △미국△말레이시아△일본△중국 △캐나다에서 참석한 6명의 수사학자의 발표가 있었으며 제 2부에선 수사학의 역사: 전통과 다양성(History of Rhetoric: Tradition and Diversity)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영국에서 참석한 5명의 학자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학교 대학원 1층 브릭스(BRICs)관에서 진행된 국제학술대회의 2일 차 제1부에선 영광스러운 한국수사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전성기 한국수사학회 초대회장의 기조 강연인 '왜 수사선생인가'가 진행됐다. 그리고 제2부에선 '수사학 연구의 오늘 그리고 내일(The Studies of Rhetoric: Present and Prospects)'이라는 주제로 한국 수사학자 6명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학교의 세계적 학술대회인 만큼 영어-한국어 그리고 중국어-한국어 동시통역이 지원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 나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의 갈등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를 평화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수사학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세계적인 수사학 국제학회 ISHR(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Rhetoric)의 홈페이지에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해 수사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세상을 빛낸 우리학교 동문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돼

지난달 31일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과 김민정 대학일자리플러스분부장은 박병철(성경·국통 67) 에베레스트 트레이딩 콤파니(Everest Trading Corp) 회장(이하 박 회장)과 안익인(사) 임흥길휴먼재단 상임이사인 임흥길(중국·중언문 02) 대장(이하 임 대장)을 초청해 2023 Hufs 특강-동문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사회과학관 박병철 강의실에서 진행된 특강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우리학교 총학생회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약 2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이날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박 회장은 지난 1982년 에베레스트 트레이딩 콤파니 설립했고 남가주 무역협회 회장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사장직을 역임했으며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한인의 날' 대통령 표창△산업자원부 장관 표창△한국외대상(Hufs Awards) 등을 수상받은 바 있다. 또한 함께 특강을 진행한 임 대장은 임흥길 휴먼재단 상임이사로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받은 물론 △도산인상 봉사상△대한적십자사 박애장 금장△제2회 민해대상 등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체육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박 회장과 임 대장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 도전한 경험담을 전했다. 박 회장과 임 대장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더라도 자신을 이겨낼 것을 강조하며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우리학교 재학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특

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선배들과 양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일 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큰 용기를 얻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강을 공동 기획한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움직이는 총학생회로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동문 선배의 특강을 기획하게 됐는데 준비하는 동안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민정 우리학교 설립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이번 동문 선배 특강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데 귀중한 기회가 되었길 희망한다"며 "동문 선배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을 앞으로 지속해서 수행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6여년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원스톱(One-Stop) 진로취업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학교 및 학교 인근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에 기여를 해온 바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황찬일(국제지역·프랑스 18) 씨는 "이런 뜻깊은 행사가 우리학교에서 열린 점에 대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가 많이 개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우리학교, '2023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지난달 30일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23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에서 우리학교 김선민(경상·GBT 20) 학생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교육과정 수료생들을 비롯해 국내외 청년 SW개발분야 구직자들과 기업을 이어주는 대규모 채용 행사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SW전문분야 우수인재를 확보해 국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과 미래의 SW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 대학 학생뿐 아니라 △경력스신입△해의 개발 인재 약 4,000여 명과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 등 천억 원 이상 규모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선민 학생은 "기술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최신 논문을 읽는 습관을 갖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논문 스터디에 참여하고 영어를 꾸준히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됐다"며 "우리학교 AI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술 커뮤니티와 더욱 밀착된 협력을 이루며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중기부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SW/콘텐츠분야) 사업 주관대학으로 최고 평가 및 최고 지원금액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리학교는 해당 사업을 △바이오 융합스마트 관광스마트 재생 에너지 등에 특화된 제주대학교(이하 제주대) 및 2,05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 회원을 보유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Korea Startup Forum)과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와 제주대는 학점교류 협약을 통해 수도권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SW 개발자 양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영아 기자 06zchung@hufs.ac.kr

서울캠퍼스 도서관 사물함 부족, 이제는 해결에 나서야 할 때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해마다 꾸준히 유료로 사물함을 양도한단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사물함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래 가격은 3

개월에 5천원으로 저렴한 수준이지만 에타에서 10배 이상인 5만원 내외로 거래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양캠의 각 건물에 위치한 사물함과 도서관 사물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도서관 사물함 운영 현황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 사물함 이용 수칙은 현재 1인 1함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개월에 2,000원 3개월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있다. 설캠 도서관의 재건축 전에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해 열쇠를 주고 받아 오프라인 방식으로 사물함을 이용했다. 그러나 재건축 후에는 2층에는 89개, 3층과 4층에는 149개, 5층에는 169개로 총 566개의 사물함이 설치되면서 스마트 제어부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서관 6층 공공인재개발원에 위치한 입용고시 연구실이나 행정·입법고시 연구실인 시민재의 실원은 개인 사물함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층의 경우 전자 사물함 제어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배정 받을 수 있다. 고시를 준비 중이지만 연구실에 지원하지 않은 우리학교 재학생 김윤서(사회·정외 23) 씨는 “웬만한 고시 책들은 모두 무거울 뿐더러 통학을 해 사물함을 이용하려고 해도 남은 사물함이 없다”며 “에타로 사물함을 구매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학생회실에 방문하면 도서관 사물함을 배정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 외에도 각 건물의 열람실에 사물함이 함께 설치돼 있어 사물함의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글캠의 지리적 여건상 전공 수업을 듣는 건물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멀어 건물 열람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회에 신청하면 열람실의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사물함 부족에 불편을 느낀 적 없다”고 전했다. 사물함 부족과 관련한 문제는 주로 설캠 도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형우(아언문·이란어 22) 씨는 “에타에서 알게 된 사물함 판매자가 최대 15만원까지 판매 가격을 제시했다”며 “이외에도 도서관 사물함은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도서관 사물함 이용이 부담스러

운 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설캠에 위치한 노후화된 사물함들은 강의동의 미관 및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번 해 3월 설캠 강의동에 인프라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인문과학관과 사회과학관 각각 300개와 400개로 총 700여 개의 전자 사물함이 설치됐다. 기존 철제 사물함은 자물쇠를 이용해야 했기에 학생들이 번거로움을 느꼈지만 이를 전자 사물함으로 교체하며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설캠은 향후 전자사물함을 최대 2,000개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유일하게 24시간 건물이 개방돼 사물함의 수요가 가장 높은 도서관의 경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설캠의 경우 도서관자치위원회(이하 도자위)가 직접 중앙도서관의 사물함 신청을 받는다. 도자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물함은 총 30여개로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에 비해 적은 수량이지만 신청 및 배정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지 않다. 이는 도서관 내에 더 많은 수량의 사물함들이 시설업체의 관리 하에서 사용되고 있어 충분한 양과 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희대 설캠 도자위는 “각 단과대학 별 자체 사물함이 충분한 수량으로 준비되어 있어 학생 개인 간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영대학의 경우 현재 800여 개의 사물함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물함이 필요한 고시생을 대상으로 고시 사물함과 일반 사물함을 구분해 별개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 사물함은 전자사물함이기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만 교내에 설치된 사물함의 수가 부족해 도서관 사물함 앞에 타인의 짐이 방치돼 있는 등 사물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학교 도서관 사물함 부족 문제로 인해 부가적으로 여러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3월 우리학교 설캠 총학생회는 도서관장과의 면담에서 도서관 사물함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고 도서관은 학교 본부에 200여 개 확충을 건의했지만 학교 본부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결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은 “사물함 부족에 관한 문제가 옛날부터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도서관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5층 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도 사물함이 최대로 설치될 수 있는 총 169함으로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설캠 제57대 총학생회장 배귀주(사회·국통 20) 씨는 “개인이 사고 파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를 사물함 수의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연체 사물함의 회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도서관에 요구해 회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사용 가능한 사물함을 늘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도서관 사물함 사용에 있어 학생들이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도서관 사물함의 불공정한 이용이 타개되길 고대한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후속보도

우리학교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학식, 이제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할 때

지난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식 메뉴에 식이소수자들을 위해 비건 김밥이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 설캠 학식엔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메뉴가 비건 김밥 하나뿐이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엔 별도로 마련된 비건 메뉴가 없

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학식이 오늘날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학교 비건 학식 현황과 이상적인 비건 학식 개편 방안의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학식 현황

지난 1042호 기사에서 우리학교 채식주의자의 대학생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설캠 비건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학교 학식 메뉴에 비건김밥이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비건김밥 이외의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메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글캠의 경우 아직까지 비건지도사업이 진행된 바 없으며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메뉴도 없다. 우리학교 설캠 학식 메뉴에 비건김밥이 도입된 초기엔 기존의 김밥에서 햄만 빠진 채로 판매됐으나 이후엔 계란도 뺀 완전한 비건식으로 판매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구동한(중국·중언문 17) 씨는 “건강을 위해 학식으로 비건식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메뉴가 비건 김밥뿐이라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중에서 파는 비건 제품들은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어 학식으로 비건식을 이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김밥은 약 200개, 비건 김밥은 약 15개로 판매되고 있는데 비건 김밥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명우 우리학교 설캠 총괄지원팀장은 “학교 식당 구조 상 배

식구의 수가 한정돼 있어 이를 수요 창출이 어려운 비건 메뉴에 할애하기 어려운 사정이다”고 전했다.

◆이상적인 비건 학식의 개편 방안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 인문사회캠퍼스(이하 인사캠)에선 이번 해 하반기부터 교내 두 식당에서 비건 학식을 판매 중이다. 이는 교내 비건 지향인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으로 총학생회와 학교 본부가 동의한 후 상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성균관대에선 이미 이전부터 학식 메뉴에 비건 메뉴를 도입해왔다. 초기엔 수요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잠시 중단됐으나 재정비한 뒤 다시 도입했다. 인사캠에선 지난 학기부터 비건 학식을 정식 메뉴로 도입했지만 월 1회 제공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 상시 제공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며 학생들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균관대는 비건 간편식을 판매하면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수요가 꾸준하다면

비건 메뉴를 정식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균관대 내 패컬티(Faculty) 식당엔 비건 뷔페가 있는데 이 식당은 채식주의자가 아닌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례를 바탕으로 우리학교 학식에 비건 메뉴가 추가 도입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한 뒤 적절한 대응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비건 식단이 성황리에 운영 중인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상적으로 수요가 높은 비건식이 무엇인지 파악해 학생들이 비건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학교 재학생인 이사람(국제지역대·중앙아시아 23) 씨는 “학교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편의점 간편식을 이용하는 편인데 편의점에서 비건을 찾기 어려워 학교 차원에서 비건 간편식 도입을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가에도 채식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학식이 마련돼 식사 선택권이 보장되길 고대한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문제있는 자치공간, 위축되는 학생활동

우리학교엔 △과방△동아리방△동아리연합회실△총학생회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치공간이 존재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공간을 △공부△동아리△학생회△휴식 활동 등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공간에선

△공실 문제△냉방기 관련 문제△운영시간 규제 문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다수 존재했다. △자치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자치공간에 관한 문제점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자치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학교엔 △과방△동아리방(이하 동방)△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실△총학생회(이하 총학)실 등을 비롯한 자치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치공간은 학생들의 △공부△동아리△학생회△휴식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 공간들은 △건설기획팀△공간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공간조정위원회(이하 공조위) 등을 거쳐 각 자치기구에 분배되고 이는 시설관리팀이나 학생지원팀 등 우리학교의 부처들과 협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공간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공간 부족 문제의 경우 캠퍼스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두드러지는데 설캠 총학과 행정지원처 간의 면담에서 총학 또한 절대적인 자치공간의 부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실제로 설캠 총학 산하 특별기구인 '휴스스포츠(HUFSPORTS)'의 경우 지난해까지 배정받은 자치공간이 없어 설캠 동연이 보유하고 있던 공실을 대여해 사용했다. 이 문제에 대해 건설기획팀은 "학생들이 자치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 규제 문제 또한 자치공간에 관한 문제 중 하나다. 현재 설캠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은 각각 오후 11시와 오전 12시까지로 자치공간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리 활동에 제약이 생겨 학생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 설캠 중앙동아리 '새물결'에서 활동했던 박태현(서양어·스페인어 22) 씨는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 동방 이용 시간으로 인해 합주 연습 시간을 맞추기 곤란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러한 제한 시간으로 인해 일부 자치기구의 경우 이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의 일부 학과는 지난 3월에 이용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한편 냉난방기 운영 시간 제한 문제도 많은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설캠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글캠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냉난방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공간 운영 시간인 오후 11시와 오전 12시에도 미치지 못한 시간이다. 이로 인해 특히 겨울철엔 허용되지 않은 온열기기를 자체적으로 들여와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우리학교의 시설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치공간에 관한 문제점의 원인

먼저 설캠의 공간 부족 문제는 자치공간으로 지정된 공간 자체가 적은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설캠의 자치기구와 중앙동아리의 수는 약 120-130개며 자치공간으로 지정된 공간은 약 150-160개로 기구당 약 1.24개의 자치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단과대학(이하 단과대)과 학과 자치기구의 경우 △단과대 동아리세미나실△학과 동아리 등과 같이 추가적인 공간 수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구당 약 1.24개에 불과한 공간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기획팀은 "현재도 조정을 통해 공간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공된 공간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제공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간이 공실로 방치되는 등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또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행정지원처장 또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설캠 총학에 문의한 결과 현재 공실인 자치공간은 3-4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러한

공실에 대해 설캠 총학은 "동연이 새로 생긴 동아리 제공을 위해 여분이 필요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간을 설캠 동연이 타 자치기구에 대여해 준 사례가 존재하나 그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거나 복잡한 실정이다.

자치공간의 운영 시간은 구성원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현재와 같이 규제하고 있다는 게 총괄지원팀의 입장이다. 총괄지원팀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치공간 내에서의 학생들의 일탈과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총괄지원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치공간을 24시간 개방하게 되면 음주 문제와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된 자치공간의 모습

두 번째 원인은 외부인에 의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총괄지원팀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만큼 외부인에 의한 범죄 행위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자치공간을 24시간 개방 시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에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냉난방기의 운영 시간 제한 문제의 원인은 전기세에서 기인했다. 최호성 우리학교 행정지원처장은 "비용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운영 시간의 연장은 어렵다"며 "현재 전기세로 발생하는 30억 가량의 비용도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겨우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기를 확대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안전 문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시설관리팀은 "근무자가 없는 야간시간대에 자치공간 내의 시설물 안전사고 및 화재 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냉난방 가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자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실을 재분배하는 등 현재 자치공간으로 지정돼 있는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운위와 공조위 등에서 자치공간 분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실이 없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분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치공간 운영시간 규제 문제는 총학이 행정지원처장에게 제안한 안과 같이 24시간 개방 후 안전 규범 및 이용 내규를 구체화하고 이에 처벌 조항을 두는 등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4시간 개방을 시행할 수 있다. 해당 방안에 대해 마채운(아시아·이란어 22) 씨는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자치공간 사용이 보편화된다면 자치공간의 안전한 24시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에 대해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로 덕성여자대학교의 경우 교내 보안 요원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우리학교에서도 이러한 순찰 로봇을 시험 운영 중에 있으나 한계 또한 존재했다. 이에 대해 총괄지원팀은 "해당 로봇이 건물 내부의 긴급 상황에 대해 파악하거나 이상 행동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한계가 계속 존재한다면 24시간 개방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안들과 관련해서 학생 자율 순찰대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이글가드'라는 학생자치기구를 만들었다. 해당 기구는 교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행정관청과 경찰서 등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의 치안을 지키고 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었다.

냉난방기 운영 시간 문제 중 하나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운영시간은 연장하되 전기세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설정 온도를 조정하고 바람 세기 정도를 약하게 설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일정시간 가동 이후 자동적으로 냉난방기가 꺼지도록 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해당 방안을 채택해 냉난방기를 운영하며 전기세를 절감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냉난방기를 24시간 가동할 시 냉난방기 가동 조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것 또한 방안 중 하나다. 시설관리팀에 따르면 현재 우리학교 자치공간의 냉난방기 가동 조건은 하절기엔 실내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를 조건으로 하고 동절기엔 외기온도가 5도 이하일 때를 조건으로 한다. 이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한다면 냉난방기 24시간 가동 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공간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휴식공간이자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이 공간에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다양한 행사가 탄생하기도 한다. 자치공간은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 만큼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학내 모든 구성원의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불편한 교내시설 대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내 여러 시설들의 사용 신청을 받고 대관을 진행한다. 주로 윈스톱서비스센터를 통해 대관이 진행되며 각 건물 별로 상이한 운영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교내 시설을 대관하는 데 문제가 지속

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내 시설 대관의 현황△교내 시설 대관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교내 시설 대관의 현황

우리학교의 시설은 크게 △강의실△자습실△체육시설△행사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학생전용 행사시설인 대강당과 브릭스(BRICKS)문화관이 있으며 자습 및 체육 시설엔 △농구장△스터디룸△운동장이 존재한다. 이 밖에 △국제회의실△브릭스국제포럼장△브릭스화상강의실△사이버관대강당△사이버소강당△오바마홀(Obama Hall) 등의 시설이 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학생전용 행사시설인 소극장과 세향관이 있으며 자습시설의 경우 △백년관△어문학관△인문경상관△자연과학관 내의 스터디룸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시설 대관은 우리학교 윈스톱(One-stop) 대실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해당 예약사이트에 접속해 대실 △날짜△시간△장소 등을 선택한 후 허가원을 출력해 대실하고자 하는 건물 안 내실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강의실의 경우 대관 횟수가 하루에 1회로 제한되며 한 달 최대 5회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설캠 강의실은 평일에 오후 5시까지 수업이나 시험 등의 목적은 대관이 불가하지만 이후 시간대 및 주말의 경우 윈스톱 대실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다. 스터디룸의 경우 대여 가능 횟수가 하루 1회로 제한되며 행사시설의 경우 한 학기에 최대 3회까지 대관을 진행할 수 있다. 운동장 대여 또한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윈스톱 대실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우리학교 체육실에 따르면 운동장 대여의 경우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어 주로 동아리 관련 활동에 대여가 진행되고 있다. 외부인의 경우 외부 대관 시스템을 통해 학교 측에 연락한 후 예약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경우엔 유료로 대관이 진행된다. 특히 오바마홀의 경우 그 행사 대상과 취지에 따라 진행되는 대관방식이 상이하다. 총괄 지원팀에 따르면 공식적인 학생회 행사나 총장의 인가를 받은 행사의 경우 따로 비용을 받지 않지만 학생 개인이 사적으로 대여를 하는 경우 냉난방비와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지금까지 동일한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내 시설 대관의 문제점

외대학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학생이 우리학교 대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응답자 중 75%가 강의실 대관시스템에 불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강의실에 이어 행사시설에 대한 시스템이 2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불만족하는 사유는 △시설마다 상이한 대관 방법(50%)△수요에 비해 적은 대여공간의 공급(25%)△적은 대관 가능 횟수(25%) 등이 있었다.

교내 시설 대관의 문제 중 하나는 양 캠퍼스(이하 양캠) 간의 교차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설캠 학생이 글캠 시설을 대관할 수 없으며 글캠 학생 역시 설캠 시설을 대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정은 학생들의 불편을 야기한다. 이중 및 부전공

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우리학교 특성상 이중전공을 양캠에서 함께 수강하는 학생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의 경우에도 다수의 동아리가 양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 따르면 양캠 간의 교차 대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우선으로 두고 수업 및 보강 등과 같이 수업 관련 위주로 강의실 대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설캠 강의실 공간의 경우 수업 배정 및 수업 관련 대여를 함께 강의실 여력이 부족한 편이기에 교차 대관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했다.

대관 가능 횟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동아리 활동과 같이 한 달에 여러 번 장기적 대여가 필요한 경우 강의실 대여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우

교내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각 강의실과 건물별로 관련돼 있는 업무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다”며 “예를 들어 전산실습실의 경우 디지털서비스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 관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학교처럼 이원화캠퍼스로 운영중인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 역시 설캠과 안성캠퍼스(이하 안성캠)는 양캠 모두 별도의 예약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없으며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내고 이용해야 한다. 설캠 학생이 안성캠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역시 가능하다. 단국대학교(이하 단국대)의 경우 또한 죽전캠퍼스(이하 죽전캠)와 천안캠퍼스(이하 천안캠)의 교내 대관 시설 예약이 동일한 사이트에서 이뤄지지만 자신이 속해있는 캠퍼스에 따라 예약할 수 있는 화면이 상이하다. 양캠 간 교차 대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련 업무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원화캠퍼스인 단국대와 중앙대의 경우 양캠 간 교차 대관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학교 또한 양캠 간 교차 대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약 방법의 통일성도 요구된다. 우리학교는 현재 △윈스톱서비스센터전화 예약△직접 예약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하며 시설마다 방법이 상이한 상황인데 이를 통일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관 횟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당시 대관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 것을 보아 많은 학생들이 대관 횟수에 대한 제약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학생들의 권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캠 홈페이지에 따르면 강의실 대관에 대해 불가하다고 적혀있으나 글캠 학생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윈스톱 서비스 센터를 통해 교내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정확한 정보 역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내 시설은 우리학교 재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 측이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교내 시설 대관 시스템을 개선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대관방법	관리부서 (☎ 02-2173-)
강의실	평일 주간	교수학습개발원 사회과학관 인문사회관	대관 불가 (수업, 시험, 보강은 가능)	학사종합지원센터 (☎ 2130)
	야간, 주말, 방중			학생지원팀 (☎ 2794~5)
행사시설 (학생전용)	대강당	인문관 2층	예약사이트 접속 (서울, 글로벌)	디지털서비스팀 (☎ 2246)
	브릭스문화관	대학원 1층		디지털서비스팀 (☎ 2246)
자습시설 및 체육시설	스터디룸	교수학습개발원 (1층)	총학생회 (☎ 2770)	
		국제학사 3층	체육실 (☎ 3070)	
	운동장 및 농구장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대관방법	관리부서 (☎ 031-330-)
강의실	평일 주간	자연과학관 공학관	대관 불가 (수업, 시험, 보강은 가능)	학사종합지원센터 (☎ 4086)
	야간, 주말, 방중	어문학관 교양관 인문경상관 백년관		학생지원팀 (☎ 4034)
행사시설 (학생전용)	세향관	자연과학관		디지털서비스팀 (☎ 4137)
	소극장	세향관		

▲양 캠퍼스의 시설 사용신청 표(출처: 정보지원처)

리학교 측에선 동아리에 추가적으로 강의실 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닌 개인의 대여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의 대여권이 부족한 경우 동아리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이지유(서양어·스칸어 23) 씨는 “대여권 횟수가 부족해 동아리 활동을 위해 대관을 할 때 부담을 느낀다”며 “개인의 대여권 횟수를 늘리면 더욱 원활한 동아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관 횟수 증진에 대한 의견을 방과후 강의실 대여를 담당하는 학생지원팀에 문의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대관에 대한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대관 시 혼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대학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내 시설 대관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시설마다 상이한 대관 방법인만큼 다수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정보지원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교내 시설마다 대관방법이 조금씩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캠 일반 강의실의 경우 평일 주간 이후엔 예약 사이트인 윈스톱 대실 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하지만 애경홀의 경우 국제관 3층 조정실을 직접 방문해서 예약해야 한다. 브릭스국제포럼장이나 사이버소강당 등은 전화 상담 후 방문해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캠 백년관 시설 중 △국제세미나실△컨퍼런스홀△회의실 등을 예약하기 위해선 총괄 지원팀에서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각 시설마다 담당 부처가 달라 대관 방식이 상이하다면 학생들은 혼란을 다수 겪을 수 있다. 학종지는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읽어서 세계속으로

루마니아적인 것을 찾아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대학교(Universitatea din București)에서 공부했다. 신입생 때부터 책과 강의 시간에만 보던 루마니아를 직접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운 좋게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돼 루마니아에 방문할 수 있었다.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으로 간 루마니아엔 이아시(Iasi)와 부쿠레슈티(București)라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난 다른 도시들도 여행하고 싶었기에 수도인 부쿠레슈티를 선택했다.

학업적으로 전공어 실력을 키울 목적이 있었지만 루마니아의 문화적인 부분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다. 갈 수 있는 한 많은 루마니아 지역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전 수많은 루마니아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스비아아 마레(Baia Mare)브라소브(Braşov)스나니아(Sinaia)시비우(Sibiu)콘스탄차(Constanța)클루지나포카(Cluj-Napoca)툴체아(Tulcea) 등의 도시들을 방문했는데 특히 마리무레쉬(Maramureş) 지역과 툴체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리무레쉬는 루마니아의 북부 지역으로 루마니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11시간의 야간 기차를 타고 마리무레쉬의 바이아 마레에 도착했다. 그곳은 건물들로 가득했던 부쿠레슈티와 다르게 시골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 때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고 부활절 기간 동안엔 버스나 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계속됐다. 시게투(Sighetu)지역에선 집을 풀고 여유롭게 도시를 걸어 다니기도 했다. 닭들을 풀어놓고 기르는 모습이 신기해 구경하던 도중 누군가 담배라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루마니아어를 어떻게든 사용해 보고 싶어서 용기 내 말을 걸었다. 몸짓을 섞어가며 서툰 루마니아어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그의 가족이 나를 무척 환영해 줬던 게 기억에 남는다. 다양한 종류의 햄스루마니아 전통주인 벨링커



(Pălincă)와 와인스치즈로 성대한 대접을 받았다.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루마니아식 환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

대부분의 예산을 루마니아에서 사용했기에 다른 유럽 국가는 아쉽게도 방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루마니아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에 충분히 만족한다. 여행은 주로 혼자 다녔지만 루마니아 생활에서 친구들의 도움이 많이 받았다. 많은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 학기의 루마니아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떠나보는 유럽과 장기간의 해외 체류였기에 두려움이 많았고 치안과 인종차별 등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루마니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보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생활면에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바쁜 경쟁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끼며 그덕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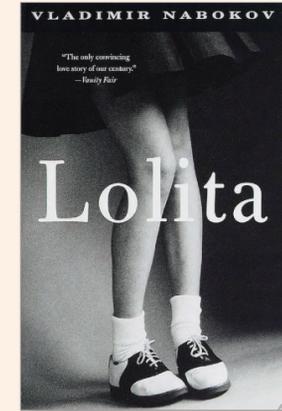
우리나라로 돌아온 뒤 스루마니아어스영어나스일본어 등 외국어를 구사할 때 자신감이 붙었고 전보다 실력이 향상됐음을 깨달았다. 더불어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런지 전통적인 것들의 소중함도 배웠다. 전공어와 전공 국가의 문화를 사랑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그 나라에서 거주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것들도 배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승헌(서유럽 · 루마니아 18)

러시아

<롤리타>

-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



"롤리타, 내 삶의 빛이요, 내 생명의 불꽃" 문학을 애독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문장은 러시아의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의 작품 '롤리타'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문구다. 지난 1955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당대 독자들에게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시뭏갓갈린 평가를 받았다. 작품의 현란하고 심미적인 문체와 정묘한 표현 기법을 들어 영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 극찬한 평가가 존재하는 반면 소아성

이라는 논쟁적인 주제를 다룬 탓에 격렬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소설은 지난 1955년과 195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영화로 제작됐고 지난 2002년엔 노벨 연구소가 발표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선 그 문학성을 공히 인정받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함버트(Humbert)는 문인(文人)으로서 어린 시절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인물이다. 주인공이 열세 살이었을 당시 첫사랑이었던 '애너벨(Annabel)'이 장티푸스로 사망한 뒤로부터 애너벨을 연상시키는 어린 여자아이들에 대해 병리적인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된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주인공은 하숙집을 물색하던 중 '돌로레스(Dolores)'라는 열두살 여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내 그녀에게 매혹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돌로레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인 '살롯(Charlotte)'과 결혼한다. 돌로레스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주인공의 병태적 욕망은 점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인공은 돌로레스에게 '롤리타'라는 별칭을 붙이거나 그녀에 대한 성적 환상을 투영한 일기를 쓴다. 결국 일기를 발견한 살롯은 충격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주인공은 그 사실을 돌로레스에게 숨긴 채 그녀와 성관계를 갖는다. 돌로레스는 함버트와 미국 각지를 여행하다 열병에 걸려 입원하던 중 어느 날 자취를 감춘다. 낙담에 빠진 함버트는 돌로레스가 리처드(Richard)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소설은 주인공이 열병에 걸렸던 돌로레스를 병원에서 나오도록 유언한 '퀸티(Quitty)'를 살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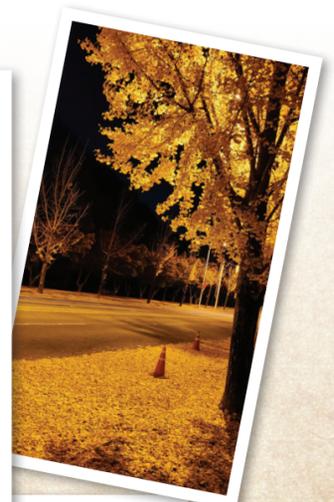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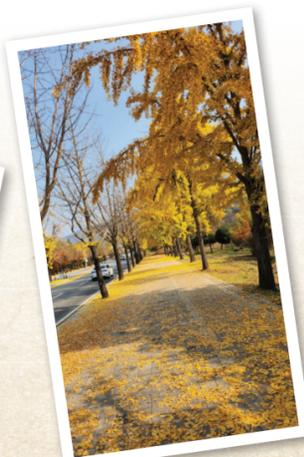
이 작품이 철저히 함버트 개인의 시점에서 쓰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작품에선 사태에 대한 주인공의 주관적 인식만이 드러날 뿐 타자의 처지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폭력은 교묘히 위장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돌로레스의 일상적인 행위를 자신을 향한 유혹으로 곡해하고 더 나아가 돌로레스를 애너벨의 대체제로 여기며 자신의 병리적인 성적 환상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게 그 예다. 생각컨대 사랑이란 자아의 균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생경하고 불확실한 실체로서의 타자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윤리적 실천이자 실존적 결단이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돌로레스는 단순히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객체에 불과했다.

이 작품은 독자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권유한다. 혐오가 득세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반드시 수행돼야 할 작업이다. 거시적인 담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시스한 충돌들 역시 타자에 대한 몰이해나 타자성을 억압하려는 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랑을 명목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횡행하는 시대상을 고려하면 이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작품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함의가 지대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기자들이 찍은 우리학교의 가을..



우리 일상에 침투한 빈대, 철저한 방역을 위해선

최근 전국에 빈대 공포증이 확산되며 지하철과 버스 등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도 빈대가 출몰한다는 제보가 뒤따르자 일상생활에서 빈대를 경계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도 일회성 방제가 아닌 근본적인 빈대 퇴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빈대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여전히 빈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빈대 사태의 현황 빈대 대처 현황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빈대 사태의 현황 및 대응실태

빈대는 외부에서 서식하다가 집 안으로 침입해 피해를 주기에 가정 해충으로 분류된다. 빈대와 유사한 가정해충인 모기의 경우 한 번 흡혈할 때 피의 양이 대략 2.5μL 정도지만 빈대가 최대로 흡혈하면 흡혈한 혈액의 양이 모기의 5-7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빈대는 빈혈증을 유발하며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을 일으켜 염증 수치를 올리고 고열을 동반한 증상까지도 나타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통해 보일러와 라디에이터 보급이 대중화되고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파△침대△카펫은 빈대의 서식처가 되기에 빈대 출몰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프랑스 빈대 전문가이자 곤충학자인 장미셸 베링거(Jean-Michel Behringer)(이하 베링거)는 선진국의 시민들은 빈대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기에 빈대 공포증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대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데엔 △관공△이민△컨테이너 무역 등과 같은 세계화 관련 요소를 주로 꼽았다. 20세기 이후 빈대살충제인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그 개체 수가 감소했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경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여행객의 입국이 빈번해지며 빈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서울의 빈대 출몰 건수는 23건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빈대 출현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이미 모든 부서에 대응을 지시했다”며 “직물의자도 단계적으로 교체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선 8건의 빈대 출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8일까지 서울 지하철 가운데 6개 호선과 75칸을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조사했다”며 “빈대가 나타날 만한 서식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과 세종을 포함해 충남 지역에서도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빈대 출몰 지역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을 운영해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환경부와 관련 부처 회의를 열고 공동 숙박 시설 등에 대한 빈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빈대 발견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는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3명을 투입해 △목욕탕△찜질방△호텔 등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자취촌과 고시원 등 위생 취약시설의 빈대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달 말까지 시내 모든 다중이용업소 3175곳에 대한 전수 조사가 예정돼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소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선 안심 속소 스티커를 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빈대 발견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빈대 퇴치 대책본부를 만들어 빈대 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전국 최초로 빈대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빈대를 발견한 시민이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할 시 서울시와 보건소가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방역한다. 또한 지난 15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빈대 퇴치에 활용되는 살충제 8종을 새로 승인하기도

했다. 다만 새로 승인된 모든 살충제는 전문 방역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에선 사용할 수 없다.

◆빈대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

9월 중순 대구 계명대학교(이하 계명대)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와 경기 부천시 고시원에서 빈대가 출현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같이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 형태인 △고시원△기숙사△원룸에서 빈대가 출몰하는 실정이다. 특히 고시원이나 원룸과 같이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기 힘든 시설에선 빈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개인이 빈대 퇴치를 위해 방역업체를 부를 경우엔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빈대 취약계층인 청년에 대한 빈대 퇴치 관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빈대 출몰이 잇따르자 고시원과 자취촌 등 빈대 취약 계층이 사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방역하며 약국 여러 곳을 방문해 구매하고자 하더라도 살충제가 품절되면서 구매가 어려워졌다. 김도현(사회·정의 23) 씨는 “빈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예방 차원에서 살충제를 구매하려 했으나 약국에서 저렴한 살충제는 이미 품절된 상태였다”며 “값비싼 살충제를 구매하기엔 부담스러워 고민이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각 대학에선 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해충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최근 자교 체육선수들이 사용하는 숙소를 대상으로 주말마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재학생이 이용하는 생활관 위주로 빈대와 진드기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 결과 추가 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충 방지 작업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도 “기숙사나 강의실 등 단체 생활이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해충 방제 조치를 강화할지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까지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중 빈대가 확인된 곳은 없었다.

빈대 침입을 시별하기 위해선 수면 중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린 자국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기에 빈대의 △검붉은 배설물△노란빛 똥새 △붉은색 피자국△탈피껍질 등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침대 매트리스와 시트를 위주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와 서울시는 서울 소재 대학에 빈대 주의 안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란 취지의 공문과 빈대 식별 및 방제법을 담은 정보집을 보내며 개별적인 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희대학교△명지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는 각각 △17일△중순△15일에 기숙사 방을 비우고 방마다 살충제로 빈대를 방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 다수의 대학에서 빈대 방역에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선 적극적인 빈대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살충제를 살포하기 위해선 기숙사 방을 비워야 하고 소독을 하면 민원이 우려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설캠 국제학사는 “화장실과 샤워실은 연 6회 정기 소독을 실시해 지난 17일에 진행됐고 빈대 방역 전문 업체와는 계약은 체결했음에도 기숙사 전체를 방역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퇴소한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재학생들로부터 빈대 발견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진 강제적인 방역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학교 글캠 기숙사는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학기 중에 학생들 방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지난 18일 기숙사 공동화장실과 복도 등 공용 공간만 우선 방역했고 종강 이후에 전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빈대 사태는 개인이 감당하기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다.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과 퇴치에 있어 정부와 대학이 각각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하철에서의 빈대 방역 작업 모습 (출처: 노컷뉴스)

방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대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돼 관계 당국이 방역에 나섰다. 지난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천안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빈대 추정 사체를 발견했으며 이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은 기숙사 전체에 대해 해충 방역을 시행했으며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우리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자취 중인 재학생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조규찬(경영 23) 씨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학교가 빈대 퇴치에 관련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아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경험할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인근 고시원에서 “빈대가 발생해도 해결해주기 힘들니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공지를 보내며 빈대 발생 시 명확한 대처 방안을 전하기보다 개인의 몫으로 전가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가까운 동묘 앞 중고시장도 빈대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빈대 확산 이후 근처 대학가와 청년층의 방문 빈도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빈대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살충제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며 품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엔 살충제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개당 22,000원까지 가격이 오른 상

메가시티 서울, 문제점과 진행 상황은

최근 들어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청이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의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편입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

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다방면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과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로 인한 논쟁 및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메가 서울 논의 배경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은 2026년도까지 현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도에 △고양△구리△남양주△파주 등의 지역이 경기남도에 △과천△광명△성남△용인 등의 지역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편입을 반대하며 서울시로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군사구역 및 여러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경기북도에 편입될 경우 김포시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고양△구리△과천△광명 등 경기도 각 지역에서도 서울시 편입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서울시 편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됐다. 지난 2일 백경현 구리시장(이하 백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환 고양시장도 고양시민이 원한다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메가시티(Megacity)’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메가시티 구성에 본격적인 발을 내밀었다.

한편 서울 대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자체 후보자들이 ‘메가 서울’ 구상과 ‘글로벌 서울’ 등 서울시의 영토 확장에 대한 공약을 내밀었는데 13여 년 만에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96년 경기도 광명시와 고양시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는 등과 같은 서울로의 소규모 편입은 빈번하게 있었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처럼 서울의 대규모 확장은 지난 1963년 경기 남부지역의 서울시 편입 이후 처음이다. 당시 편입되었던 경기 남부지역은 현재의 강남이 돼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메가시티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60여 년 만에 서울의 구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점

먼저 메가 서울이 실현될 경우 도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쏠림 현상은 이전부터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으나 메가 서울이 이뤄질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169만 2,272명 중 50.5%에 해당하는 2,612만 4,42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지난 2017년의 49.6%에서 매년 0.2%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메가시티까지 추진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리적 문제가 나타난다. 서울시와 김포시 사이에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과 경기도 부천시 지역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을 배제한 채 김포시만 서울시로 편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김포시를 기점으로 수많은 지역이 서울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적 문제 또한 드러난다. 김포시의 경우엔 현재 △군△면△읍과 같은



▲수도권 지도 (출처: 한경비즈니스)

농어촌 지역이 존재하며 현재 김포의 농어촌 지역엔 13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로의 편입이 확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아직 농어촌 지역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 지역이 없는 서울로 편입이 이뤄질 시 농어촌민에 대한 행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세수 관련 문제사항 역시 거론되고 있다. 김준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김포시 예산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김포시는 3,000억 원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지난 6일 김포시는 공식발표를 통해 “지방세 감소분은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우리나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편입 시 인구확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메가시티를 기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음 해 총선을 조준한 정치적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Real Meter)가 지난 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포-서울 편입론 관련 여론조사’에서 58.6%가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현황 및 엇갈린 의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주도 하에 법안 제출을 하는 것이다. 이는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세워 김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도와 서울시에 건의한다. 이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내부 의견 조율 후에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는 의견을 검토한 뒤 법률안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김포시와 서울시의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경기도가 편입에 반대 의견을 내면 진행이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국회의 특별법 제출이다. 이 경우 정해진 의결수만 충족한

다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대 유무에 상관없이 오로지 김포시의 편입의지로 편입이 가능하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해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 후 메가시티 구성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하 오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하 김 김포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첫 공식 면담을 가졌다. 오 서울시장은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서울시 내부적으로 모든 인접 지자체의 편입 시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 김포시장은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 13일 오 서울시장은 백 구리시장과도 만나 편입 문제에 대한 공식 면담을 가졌으며 지난 9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김포-서울 편입 보도가 나온 이후 다각도로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기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이 소멸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 서울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며 메가 서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방인구 유출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영남권은 10만 여명이 그리고 호남권에선 2만 3,000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는 일본의 도쿄와 중국 상하이의 사례를 들어 “메가시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우리나라의 메가시티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중국이 대도시인 상하이를 기점으로 확장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과 같이 서울 대도시권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경기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두 지자체 사이 의견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경기도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 서울시 편입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 이후에도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하면서 김포시 내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제정 시 경기도가 주장한 규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이 열렸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충청권 메가시티를 출범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홍 충청남도지사는 “충청권이 하나 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의 대학과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고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가시티 서울을 두고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권오건 기자 07ogun@hufs.ac.kr

www.사사한줄토익.com

정치 다음 해 총선 변수, 중도신당 창당되나

다음 해 4월에 열릴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의 목소리가 나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 전 비대위원장)△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찬 회동을 가졌다. 공식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정당의 폐쇄적인 집권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실용적인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에 대해 “반 윤석열과 반 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양당 구도를 타파하자는 쪽으로 명분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 연이은 마약 논란, 예방 필요해

연예인의 연이은 마약 논란이 발생하며 마약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배우 이선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의 마약 복용으로 사회적으로 마약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마약 공급 단속과 더불어 치료 재활도 병행돼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며 마약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제 공매도 금지, 증시는 후퇴해

지난 6일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과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인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정상적인 주가 조성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일어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것이다. 공매도 금지 첫 날엔 코스피지수가 2500선까지 상승했지만 그 이후 연쇄적으로 하락해 2400선까지 하락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공매도는 가격의 효율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며 자본시장에 필요한 요소”며 “이렇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제 미·중 정상회담, 회담 전망은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인 우드사이드에서 조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대통령(이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 주석)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선 군사채널 복원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두 국가는 지난 양국 간 냉전으로 인해 중단된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대만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 등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기회인가 위기인가

지난 7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에 기재된 관찰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여 만에 단행된 조치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위험성이 종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조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가 갖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강유덕 우리학교 Language & Trade 학부 교수를 만나 자세히 알아보자.

강유덕 우리학교 Language & Trade 학부 교수

Q1. 지난 7일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번 해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환율 관찰대상국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의회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의 환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과 지난 2015년 시행된 무역축진법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해요.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 중 8개월 간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입 달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중 2가지 기준을 충족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줄곧 관찰대상국에 선정돼 왔죠. 이처럼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는 이유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수년 간 GDP 대비 4~7%에 이를 정도의 큰 규모였다는 점△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 흑자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이었다는 점△이것이 지난해엔 432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Q2. 미국은 타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을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2000년대에 크게 악화됐어요.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악화 원인을 무역상대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이를 통한 화폐가치 절하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환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태도를 보여요. 실제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글로벌 불균형'으로 간주하고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 현상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죠.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기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환율을 통한 의도적인 수출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일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자국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대미국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누릴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국의 환율 및 교역 왜곡 현상을 시정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Q3. 미국이 각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국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환율 관찰대상국을 선정하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 대해선 심층분석을 실시합니다. 심층분석에선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외환시장 개입△대외지급의무 대비 외환보유액 수준△무역정책△자본△통화정책△환율정책△환율제도에 대한 규제 등의 항목을 평가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심층분석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죠.

그러나 실제로 특정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드물니

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론 △대만△중국△지난 1990년 전후의 우리나라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우리나라는 3저 호황*을 누리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죠. 이후 약 30년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으나 지난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2020년에 스위스와 베트남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Q4. 우리나라가 이번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배경과 원인이 궁금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선 △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중국 등 총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고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앞서 언급한 3개의 기준 중 2회 연속으로 1개의 기준만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국 무역수지는 380억 달러로 기준을 충족했지만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는 GDP 대비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달러 순매입은 GDP의 -1.8%로 오히려 순매도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앞선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인 대미국 무역수지에 관한 기준만 충족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결정적인 이유는 경상수지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한 것은 수출 부진 탓으로 대중국 수출 감소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무역수지의 악화 등에 기인합니다.

Q4-1.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중국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 분석하시나요?

이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상수지와 외환시장 개입조건을 충족하고 △독일△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은 대미국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기준을 충족해요. 중국의 경우 대미국 무역수지 기준이라는 한 가지의 요건만 충족하지만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2,940억 달러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외환시장 개입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Q5.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외교적 이점과 해당 조치가 향후 미화·한화 환율시장에 미칠 여파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선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해요. 어떤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는 우선 협상을 통해 해당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대미 무역수지 흑자△외환시장 개입을 줄이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이나 교역축진법 등에 의거해 해당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는 △미국 공공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금지△조달시장에의 참여 금지△해당 국가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연계 등으로 다양하죠. 따라서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해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환율 정책에 있어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며 국제 금융시

장에서 원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며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통상압력은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결정은 그러한 부담을 덜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 정책에 큰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Q6.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재 상황의 차이점 및 유사점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수출 부진에서 기인합니다. 즉 대외수출 상황이 열악하기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원인으론 △산업활동 저하△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따른 중국의 억제 정책 등 대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공급망의 균열 현상과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됐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해요.

Q7. 이번 관찰대상국 제외 조치가 향후 평가에서도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여부는 수량적 판단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할 경우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거나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론 △독일△스위스△아일랜드 등 수출 강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역 구조상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유지해 온 국가입니다. 따라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로부터 이어온 성장 모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수출 전망이 밝다고 볼 수는 없기에 과거에 비해 관찰대상국으로 항상 등재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저 호황: △저금리△저달러△저유가를 기초로 한 경제적 호황을 일컫는 말



만추가 찾아온 학보사실

우리학교 학보사실에 수습기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만 해도 여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니 시간 앞에 속절 없던 말이 절로 느껴진다. 기상이변으로 이번 해 겨울은 우리에게 조금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지만 무수히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학교를 거닐다보면 새삼 만추를 체감하게 된다. 한여름의 방종교육과 수습 신문 발행을 마치고 정기자가 된 내 첫 정식 기사는 우리학교 졸업생이신 한 아나운서의 인물 인터뷰였다. 선배님께서는 내가 바라던 근사한 사회인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계셨다. 원하던 학과에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고 싶은 일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모습은 후배인 내게 큰 귀감이 됐고 인터뷰 내내 나도 모르게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어쩌면 내게 도전의 용기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좋은 자극을 받고 열심히 살다보니 끝날 것 같지 않던 이번 학기 철야 작업도 한 번만을 앞두고 있다. 누가 내게 학보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컨대 이 철야 작업이다. 평소 밤 11시면 취침하고 6시에 깨운 아침을 맞이했던 내게 철야 작업은 고난 그 자체였다. 쪽잠을 잘 수 있지만 낯선 환경과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의자에 걸터앉아 청하는 잠은 오히려 눈꺼풀만 무겁게만 했다. 그렇게 밤새 써내려간 기사를 조판하고 퇴근하면 난 침대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끼니도 거른 채 밀린 잠을 자기 일쑤였다.

그러나 누가 내게 학보 기자로서 가장 보람찼던 게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역설적으로 철야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철야 작업은 내게 가장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것. 숙된 말로 '모순덩어리'다. 한여름 첫 마감할 할 당시 건물의 시설관리팀과 소통이 잘 안돼 에어컨도 안 나오는 학보사실에서 모두가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채로 마감을 했다. 날씨는 덥고 잠을 못 자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흐르는 그 적막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기사를 몇 번이고 수정하며 정말 당장이라도 집으로 도망가 댕구 사위를 하고 싶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이때의 기억을 잊고 싶었다. 그런데 만추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니 한여름 학보사실에서 흘린 땀으로 스물 셋 내 청춘의 여름을 돌아보게 된다. 힘들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 미화가 돼서 추억이 된 건지 내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은 건지 몰라도 이때 흘린 땀의 노고가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란 내 안의 작은 확신이 있다.

이번 해 학보의 종강호 발행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지난 여름과 같이 학보사실에서 울고 웃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지만 종강호가 발행되면 철야 작업을 하다 107기 기자들과 함께 산책 나와 캠퍼스의 단풍을 감상하던 추억을 곱씹을 것 같다. 학보에 들어와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났다. 학과도 개성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같이 선한 마음을 가진 107기 동기들 덕분에 철야 작업도 바뀔 수 있었고 올해를 예쁜 추억들로 채워 나갈 수 있어 감사하다. 107기 동기들이 학보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힘든 순간에 가끔 '2023년 학보사실'을 떠올려 줘도 좋거나 힘이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김나림 기자

[책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를 읽고] 나는 누구인가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나는 무엇인가. 과연 나라는 사람을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흥미로운 질문이었다. 불교의 관점에서 사람은 연기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여러 요소들의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는 오온(五蘊)이 32개의 장기와 개체를 구성한다. 그렇기에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모두 찰나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멸을 거듭한다. 이 흐름은 단절도 아니고 연속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폭풍과 바람으로 적절한 비유를 들 수 있다. 폭풍과 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진행되기에 알 길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 또한 불안정한 흐름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라는 사람은 주체가 아니다. 시각도 보이는 대상이 있고 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의 결과가 생기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통념상의 사회학적 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름은 나를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불교에서 인간이 연기적 요소들의 집합체이며 윤회를 거듭한다고 말한다. 윤회의 메커니즘은 흔히 십이지연기(十二支緣起)로 정의되곤 한다.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통해 생각하고 이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은 경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습관을 통해 삼마삼마카사시각스형각스축각스후각이라는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이 접촉하는 대상에 대해 애착 혹은 증오를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며 사람이라는 개체가 형성된다. 이러한 개체는 다시 태어나고 늙어 죽게 되며 삼괴로움(삼비탄)스름이라는 반복적인 순환을 하게 된다. 내생의 '나'는 전생의 '나'가 가졌던 몸과 마음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 또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마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고 난 뒤 다시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되는 과정처럼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죽고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곳에서 죽는 것이다. 즉 모든 대상은 이전 행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각과 접촉하는 대상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자 하고 집착하면서 욕망을 따라 삼괴로움(삼비탄)스름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감각과 대상을 즐겨워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열반과 즐거움은 괴로움의 부재다. 산스크리트어 'kala'는 시간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지만 죽음이러는 뜻도 지니고 있다. 시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기에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되곤 한다.

우리의 몸은 소중하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보살피는 것과 같이 닦아내고 아낀다. 이러한 '나'는 전생의 선 혹은 악의 행동과 습관의 결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고통에 지나지 않고 미래의 고통이 생겨나지 않도록 수행하고 닦아야 자신을 알 수 있고 성불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성민욱 기자 07minwook@hufs.ac.kr

[영화 '멍멍이'를 보고]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아름답다

영화 '멍멍이'는 대형견종인 골든 리트리버(Golden Retriever)를 키우는 '민수'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수는 결혼 상대에게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의 강아지 '루니'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의 사촌형 '진국'은 민수를 도와 루니의 적합한 입양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땅한 입양자를 찾기 어려웠다. 루니를 맡아줄 입양자 후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진국과 민수는 도로 위에 여러 새끼 강아지들을 버리는 가버리는 사람을 목격한다. 이들은 버려진 강아지들을 유기견 센터에 맡기기 위해 갔다가 유기견 센터의 실태를 알게 된다. 예산 부족으로 닭장같이 좁은 공간에 갇힌 강아지들에게 먹일 사료가 부족했고 이들을 돌봐줄 인력 또한 많지 않았다. 유기견 수는 많은데 입양해 가는 사람은 없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애견이나 노견들뿐만 아니라 보호소 여건상 한정된 일정 기간을 채운 어린 강아지들은 안락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화 속 유기견 센터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는 이들에게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나 또한 유기견 센터에서 지금의 내 반려견을 만났다. 그곳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영화에 등장한 유기견 센터와 현실에 존재하는 보통의 유기견 센터보다 쾌적한 환경인 편이었다. 그럼에도 유기견 센터의 입양 담당자는 "버려지는 개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센터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선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도 아직 유기견 센터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동물학대가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동물보호법 강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동물 비물건화법'의 개정은 늦

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처벌 수위가 기대만큼 높지 않아 아직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반발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동물 비물건화법의 입법이 예고됐지만 2년째 개정되고 있지 않다. 이번 해 9월에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가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와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동물들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며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가치 제고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물권 수호에 선두적인 독일은 반려동물의 개별적인 매대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할 땐 독일 정부가 허가한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 할 수 있을뿐더러 만 18세 이상의 연령의 시민만 주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허가를 쉽게 내리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는지 까다로운 심사 과정과 수차례에 걸친 사전 교육 이후 최종 시험을 통과해야 허가를 내준다. 이는 모두 사람의 무책임으로 인해 버려지는 유기견의 양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무분별한 동물 매매와 유기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견주에게 생명의 책임감을 심어주지 못하는 게 제도적으로 단순한 입양 과정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얼마나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몸소 보이고 시민 개인의 책임감과 의식을 함양해야 할 때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1085호 학보를 읽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

어느덧 한 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하나의 끝맺음은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기에 학교 구성원들은 그간 이뤄온 목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085호에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전 지난날의 우리를 되돌아보기 위해 다양한 기사를 작성했다.

3면에선 시험 중 부정행위를 둘러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특히 지난 1008호 기사에서도 다뤄진 적 있는 만큼 오랫동안 지적돼온 문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증가한 온라인 시험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시험 중 △시험을 보는 노트북으로 자료를 몰래 보는 행위 △친구와 채팅으로 답을 공유하는 행위 △책상에 미리 답을 쓰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많은 학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며 여러 학생들의 동의 없이 재시험이 실시되는 등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증가하며 그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타 대학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함께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부정행위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공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세부적으로 학칙을 개정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부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면에선 우리학교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퍼)는 다른 학교 캠퍼스에 비해 비교적 작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기에 많은 학내 구성원

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과 달리 재학생들은 정기권을 구매하지 못해 일반인과 같은 요금으로 학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그 불편이 더 큰 실정이다. 현 상황 내에서 학내 구성원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학교 내에서 공영주차장과의 긴밀한 협업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원만하고 모범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7면에선 우리학교 내 전산실습실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다뤘다. 현재 우리학교에선 다수의 전산실습실을 제공하며 양 캠퍼스 모두 많은 학생들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산실습실엔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일부 컴퓨터에만 설치되는 등 설치된 프로그램 수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학교 디지털서비스팀 측에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문제가 남아있기에 양 측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격언이 존재하듯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외대학보에선 다음 학기로 나아가기 전 우리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문제사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의 외대학보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중심적인 매체로 남을 수 있길 희망한다.

김하형(아시아 · 마인어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85호 학보를 읽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느덧 선선했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는 탓인지 사람들의 모습에도 서서히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085호에선 학습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장돼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면에선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노후한 건물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글캠에서 노후화된 건물은 △공학관 △교양관 △후생관이 대표적이다. 많은 공학관 강의실 창문엔 방충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강이 가까워지면 말벌 등과 같은 많은 날벌레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양관의 경우 산지와 맞닿아 있어 수많은 곤충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도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은 곧 학습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설관리팀은 매년 5월에 걸쳐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충들의 유입은 곧 학생들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빠른 시일 안에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보도에선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안정화되고 대부분의 강의와 시험이 대면화되면서 이전보다 부정행위 문제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학교에선 부정행위 문제가 대두되곤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학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타 대학의 경우 '당해 학기 전후 30일 성적 무효 처리'라는 더욱 강력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학교 또한 부

정행위에 관한 교칙을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앞으로 부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면에선 휴강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휴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강을 늦게 진행해 학생들의 중간 고사가 늦춰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우리학교의 경우 보강 계획 제출이나 보강 일시를 정할 때의 준수 사항 등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세부 사항이 미려돼 있지 않아 관련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학교 본부에서의 직접적인 교원 징계 혹은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면에선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캠 재학생의 경우 내버어 양식을 작성한 후 상황실에서 스티커를 수령하지만 하연 등록 차량으로 처리돼 언제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교내 주차장이 재학생들에게도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설캠은 글캠과 달리 캠퍼스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차할 공간도 여유롭지 않다. 따라서 설캠의 경우 재학생들에게 무료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거나 주변 공영 주차장과의 제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대학보 1085호에선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과 함께 타협점을 찾고 있다. 추후 날씨에 학생들을 위해 발로 뛰며 취재하고 있는 외대학보 기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다.

김윤하(통번역 · 이탈리아어 20)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보를 위해

겨울이 다가오며 학보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107기 기자들은 어느덧 능숙하게 기사를 쓸 수 있게 됐고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부장으로서의 직책에도 한결 적응된 듯 하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지만 과분하게도 차기 편집장으로 선출되며 학보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깊어졌다. 다음 학기에도 학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에서 이번 학기에 학보에서 발행했던 신문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

이번 외대학보 1086호에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짚고 있다.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꾸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학식의 비건식은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전에 학보에서 다뤘던 비건식 관련 기사 때와는 달리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1086호의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학교 학식에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생길지 희망한다.

부족한 학내 자치공간 환경에 대해서는 꾸준히 언급이 돼왔다. 이번 외대학보 기사에선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인 자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실로 남아 사용되지 않는 자치공간을 줄이고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자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이와 유사하게 학내 공간 대역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학내 공간들을 대역하고 있으나 △대역 횡수 부족△동아리 단체로 대역 불가△상이한 대역 방식 등으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편의를 재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듯 하다. 무엇보다 이원화 캠퍼스인 우리학교 특성상 양 캠퍼스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강의실의 교차 대역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이원화 캠퍼스들의 강의실 대역 방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만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위한 학내 공간 대역 체계가 구축됐음 한다.

더운 날에 만나 처음 마감을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벌써 마지막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 기분이 싱숭생숭 해진다. 이번 마감을 하며 108기 수습기자 모집 공고를 작성하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함께 해온 국부장단도 그리고 이번 학기가 많이 힘들었을 107기 기자들도 모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다음 학기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외대학보에 또 어떤 신입기자들이 문을 두드려줄지 설렘과 긴장으로 맞이하려 한다.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학보는 분명 즐거울 것이다. 나 또한 차기 편집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번 학기 학보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다음 학기에도 학생들과 학교 측의 소통 연결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편집장이 될 것이다. 모든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번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에 학보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그 시작을 모두 같이 기대해줬음 하는 바람이다.

임채린 부장 06chaeli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어느새 익씨로서 영한 통번역을 배운 지 8개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공부라서 악강버 한다...(TVT) 익씨를 포함한 외대의 모든 통번역학도 학우들을 응원합니다 (*´▽`)/

-익명-

열일하는 외대학보 기자들! 화이팅!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할게요!

-익명-

일대 21 동기들아 잘 살고 있어라~ 나중에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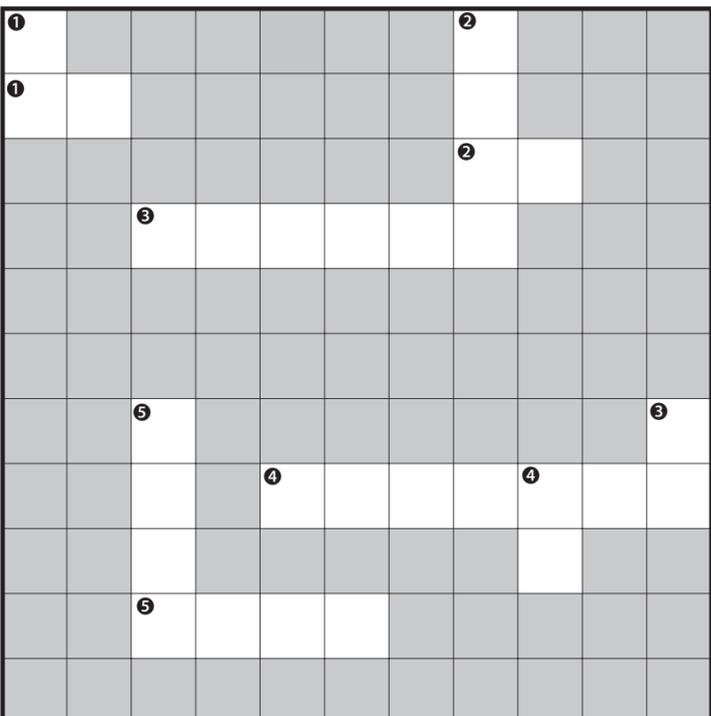
-익명-

이제 곧 우리 학교 논술고사를 보게 될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익명-



십자말풀이



가로

1. 주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통해 대관이 진행되며 각 ○○ 별로 상이한 운영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5면 참조)
2. 우리나라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인가 위기인가. (9면 참조)
3.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이글카드' 라는 ○○○○○를 만들었다. (4면 참조)
4.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과 지난 2015년 시행된 무역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는 이보고서는 세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으로 선정해요. (9면 참조)
5.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창업팀 및 창업동아리와 시드 투자 단계의 ○○○을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됐다. (2면 참조)

세로

1. 설경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학교 학식 메뉴에 ○○메뉴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진 00김밥 이외의 식이소수자들을 위한 메뉴도 없다. (3면 참조)
2. 각 ○○○에 분배되고 이는 시설관리팀이나 학생지원팀 등 우리학교의 부처들과 협의해 관리하고 있다. (4면 참조)
3. ○○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의회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차례의 환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9면 참조)
4.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내 여러 시설들의 사용 신청을 받고 ○○을 진행한다(5면 참조)
5. 우리학교 ○○○ 플랫폼인 열지 유희러스(LG U+)의 '유버스(UBUS)'에서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엔 220여 명의 우리학교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면 참조)

※파uzzle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젊음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단어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에서 메디치상을 수상하고 귀국한 한강 작가를 외대학보에서 초청하여 100명 남짓한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 메디치 상은 밀란 쿤데라와 움베르토 에코도 받은 상이다. 한강 작가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영국의 맨부커상도 받았다. 이번에 메디치상을 받은 작품은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섬 인구의 1/10이 학살된 제주, 섬 전체가 거대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간다. 수많은 내전들, 멀리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사는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녁 6시, 하루 수업을 마치고 모여든 학생들. 작품을 읽어본 아이들 손 들어보라고 하니 3/4이 넘는다. 놀란 작가가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바라볼 정도다. 강연을 다녀본 대학 중 책을 읽는 참석자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한다. 강연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고 예리해서 다시 놀랐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험을 증언하고 기록하는 일, 발굴하고 느끼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쓰는 일, 상상은 몽환이나 비현실적인 감각이 아니라 이 세계의 현실과 밀접히 관련된 감각이다. 고통을 응시해야 하는 이유는, 고통이 바로 사람의 관계, 사랑하는 일을 일깨우기 때문이란 것. 폭력에 스러진 이들을 되살려 쓰는 것은 이들과 작별하지 않고 손을 맞잡는 게 지금-여기의 삶을 살답게 사는 일이기 때문이란 것, 두 시간이 20분인 듯 흘렀다.

강연을 마친 후 작가는 외대 학생들이 진지하고 성실하다며, 질문을 많이 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대만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학생들과 마주하며 갖는 느낌과 비슷하다. 학구적이고 조용한 우리 학생들을 보면 가끔 마음 짠해질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을 우리 대학에 처음 온 작가가 공유했다는 게 신기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반항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50 대 50이 아니라 51대 49로라도 스스로 판단하는 시선을 길러야 한다고. 공정과 중립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공정의 틀을 쓴 허위를 깨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교육의 본질은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교육하다'의 어원을 보면 "educare - to bring up, educere - to bring out / bring forth what is within / bring out potential, ducere - to lead" 모두 무언가를 끌어내는 일이다. 학생의 내부에 깃든 잠재력과 숨은 역량을 키우는 일, 그런 초대가 교육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핵심은 주체적으로 질문하는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 다들 옳다고 하는 일을 다시 살피며 세계의 폐해를 응시하는 눈을 갖는 일. 그를 위한 좋은 방법을 책을 읽는 일이다.

미국의 시인 거트루드 스타인은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단 하나의 단어는 'disobedience' 즉 '불복종'이라고 했다. 20세기 초,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대학살의 시대였다. 시인은 생명을 죽이고 죽이는 고리를 끊으려면 젊은이들에게 불복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작가와 무슨 이야기를 더 했던가.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폭력과 죽음이 즐비하다. 오늘날 교육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함께 잘 사는 세계를 꿈꾸게 하는 공부는 무엇일까.

작가는 문득, 학교에 나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무 사이로 벤치가 있어서 거기서 학생들이 놀고 학생들이 가닐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우리학교는 나무가 너무 많은 캠퍼스와 나무가 너무 없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왔다고 말하며 웃었다. 교육 현장에 '나무'를 첫 조건으로 드는 작가의 시선이 신선했기에 여기 적어 기억하려 한다. 나무는 생명이고 평화이고 함께 서는 존재들의 일기기에, 생명과 평화를 키우는 일은 세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힘을 키우는 일과 닿아 있기에 말이다. disobedience, 불복종, 지배 질서를 거스르는 힘을 키우 이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되물으면서 우리는 다른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 당연한 걸 다시 질문하면서 폭력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연약한 것들을 품는 시선을 키울 수 있다. 주체적인 인간을 키워내는 일, 진지함 속에서 생기와 활력을 돋우는 교육을 고민하는 아침이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시는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5sub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조수빈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앞장선

박희권 전(前) 대사를 만나다



박희권(서양어·스페인어 76) 전 대사(이하 박 전 대사)는 우리학교를 졸업한 뒤 스페인 국립 마드리드 자치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박 전 대사는 △주 유엔(UN) 대표부 차석대사△주 페루 대사△주 스페인 대사△주 제네바 대표부 공사△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과 다자외교 분야에서 활동했다. 현재 우리학교 석좌교수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전 대사를 만나보자.

Q1. 대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으며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 시절 전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부친이 정치를 실패하고 가산이 탕진돼 매우 빈곤한 시절을 보냈죠. 우리학교 스페인어과에 수석 입학할 해서 장학금도 받았지만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해 가족을 도와야 했어요. 외교관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건 어려웠을 적부터 갖고 있던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광복 후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남북 분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외교관이 돼 남북 분단으로 형성된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 평화의 주춧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죠.

Q2. 우리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한 것이 외교관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스페인어는 전 세계 인구 중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22개국 공용어로 사용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언어 중 하나입니다. 외교관 생활을 하며 저는 국제법 전문가이자 다자외교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유엔에서 일할 때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선 네 번의 발언을 영어로 하다가 한 번을 스페인어로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 발언 이후 스페인어 사용 국가의 많은 대표들이 제 발언을 지지했어요. 또한 쉬는 시간에 쿠바의 여성 외교관이 제 자리에 와서 “동양인 중에 우리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하는 사람은 난생 처음 봤다”고 말했고 주변의 외교관들도 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만큼 외교에 있어 스페인어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Q3. 지난 39년간의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난 39년간의 외교관 생활은 긴장과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독도·해양 문제 전문가로서 독도 영유권 확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조약 국장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독도 정책을 바꾼 적이 있어요. 독도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서 독도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유인도로 바꿨습니다. 지난 2006년엔 일본에 직접 방문해 우리 정책이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정책 변경에 대해서 외교부 내부에서 압력이 강하긴 했지만 전 국익에 부합하고 앞으로의 협상전략으로서도 바람직하다는 신념 하나로 이를 이뤄냈습니다. 또 일본이 독도 문제를 비밀리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를 극적으로 간파해 막아냈던 일화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Q3-1. 페루 대사 시절 KT-1 수출 주도 등 외교관으로서 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많은 협상을 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국제 협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협상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협상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국제 협상은 페루 대사 재직 당시 국산 훈련기 20대를 중남미 최초로 수출한 것입니다. 2년간 정부 대 정부로 협상을 진행했어요. 그 당시 우말라(Humala) 페루 대통령이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교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압력으로 인해 제가 협상 당사자가 됐죠. 2년간의 협상 과정은 외교관으로서의 협상 능력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한 과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 계약 과정에서 페루의 국방 장관이 5명이나 바뀌었어요. 브라질 대통령이 페루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 항공기를 구매하면 안된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죠.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항공기 수출에 성공했고 우리 훈련기가 중남미에 진출하게 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800대의 국산 순찰차와 7척의 함정도 수출했습니다.

Q4. 외무고등고시를 합격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고시를 준비할 당시 빨리 취업해서 가족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어요. 그래서 제게 허용된 시간은 딱 1년 뿐이었습니다. 안되면 바로 다른 길을 찾아볼 생각이었죠. 1년간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걸 목표로 외교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고 결과는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외무고시나 국제기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텐데 저는 집중적으로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잠재 능력이 있으니 2-3년 정도 짧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Q5.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영국의 저명한 외교관인 헤럴드 니콜슨(Harold Nicolson)이 명저인 ‘외교(Diplomacy)’를 펴냈어요. 그는 외교관의 자질로서 △인내△정직△정확△총은 성격△충성심△침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들 모두 필수적인 자질이지만 전 애국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교관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총을 들지 않는 병사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필요한 건 국익을 위한 지혜와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죠. 간혹 어떤 이들은 외교관이란 자리를 개인의 영달과 목적을 추구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해요. 이는 국익에 반하는 처사가 됩니다. 미국의 외교관인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 대사로 일할 때 제 앞에 ‘Somos profesionales(우리는 전문가다)’란 문구를 걸었어요. 직원들도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말이죠.

Q6. 스페인의 펠리페(Felipe) 6세 국왕

으로부터 스페인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가장 높은 상인 ‘대십자 시민훈장’을 수여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걸 제 개인에게 줬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스페인과 인연이 깊고 그 좋은 인연을 이어가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에요. 과거 외교부에서 보내주는 연수를 스페인으로 갔었어요. 지난 1984년부터 2년간 스페인에서 연수를 하며 스페인 왕립외교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펠리페 6세의 부친인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국왕으로부터 1등 상을 받았어요. 또 펠리페 6세 국왕도 다닌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에서 공부하고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습니. 그래서 국왕과 좋은 관계도 맺고 제가 스페인에 있는 동안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해 이에 대한 인정의 대가로 훈장을 받지 않았나 싶고 제 자신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Q6-1. 대십자 시민훈장이 대사님의 외교 활동이나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제 활동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는 만족감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대십자 시민훈장 외에도 페루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훈장을 3년에 두 번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교관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의 원천으로 작용했죠.

Q7. 대사 재임 당시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경제적 관계와 같은 대외협력관계를 더욱 격상했는데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대사에게 있어선 △경제△문화△정치 등 모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관계는 특히 중요하죠. 현재 경제 상황이 자유무역경제에서 보호무역 경제로 바뀌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크기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대사관이 경제 외교의 주축이 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야 해요. 전 근무하는 국가와 한국과의 경제 관계 증진에 힘을 쏟았죠. 예컨대 스페인에 있을 땐 스페인에서 가장 큰 백화점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스페인 백화점의 이사들을 수십차례 만나서 설득한 적이 있어요. 2년간의 고생 끝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스페인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대사관은 경제 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Q8. 페루 대사를 지낸 뒤 스페인 대사로 활동하셨는데 페루에서 스페인으로 근무

지를 옮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3년 동안 한 임지에서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돼 있어요. 보통 대사관에서 본부로 가는 경우가 많고 대사관에서 대사관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페루 대사로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스페인 대사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페루에서 정부 대 정부 계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경제 외교 분야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게 인정 받은 것 같아요.

Q9. 가장 중요시하는 인생의 덕목이 무엇인가요?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운 건 현재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철학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에게 모범으로 삼아 본받으라고 할 리더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정직이나 신뢰같은 신념을 최대 덕목이자 나침반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Q10. 현재 우리학교 석좌교수로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39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하고 대학으로 돌아와서 느낀 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고 공감하고 앞으로 진로 개척에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요즘 수업 시간 일부를 할애해 ‘30년 후의 나’라는 발표를 시키기도 해요. 지금은 후배들이 굉장히 고달프겠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스페인 속담 중에 ‘밝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욕도가 되려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사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현재’를 굳건히 살면 반드시 미래에 길이 보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